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7호 【루게 제25921호】 주제 107 (2018)년 2월 16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2월 16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박광호동지, 리수용동지, 김령해동지, 태종수동지, 오

수용동지, 안정수동지, 박태성동지, 김영철동지, 최휘동지, 박태덕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거룩한 영상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차넘치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승업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량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군종명에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군종명에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력사적대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만년초석으로 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혁명의 성도 평양에서 시작된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봄기운이 삼천리강산에 약동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만고철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경사로온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 하고있습니다.

혁사의 이날에 즈음하여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 녀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불세출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은 우리 민족이 태양의 위업을 이으실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맞이한 대통운의 날이며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앞길에 무궁한 승리와 영광을 기약해준 대경사의 날입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그 이름도 찬란한 광명성으로 솟아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의 생애는 세월의 만고불상을 헤치시며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성스러운 력사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결출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주체조선은 세대와 세기를 이어 모진 시련과 난관을 파고파고 뚫고 자주시대를 향도하는 정치사상강국으로, 그 어떤 강적도 범접 못하는 당당한 핵보유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위용될수있었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세계정치의 거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며 6.15통일시대를 펼쳐주시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으셨으며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민족의 아버지,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받고있습니다.

오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이 우러러마르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백두에서 개척된 태양의 위업은 절기처럼 전진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 등으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시대의 영원한 지도리념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시고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를 그 이름도 영광스러운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셨습니다.

혁사의 반동들의 류체없는 도전과 발악을 짓부시고 국가력무력완성의 대업을 성취하시어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업적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군명령을 실현하시는 길에 이룩하신 가장 특출한 공적이며 우리 민족이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아래 자자손손 부락을 누리게 해주신 만고불멸할 은공입니다.

지난 2월 8일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일흔삼주년 열병식은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강군명령을 계승하여 반제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단방에 파시한 특기할 사변으로 됩니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과 원심으로 민족에 대한 열사복무의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공화국에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절대미분의 제제압박속에서도 황금산, 황금밭, 황금해의 새 전설이 끊없이 수놓아지고 로동당탄생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져지고있습니다.

건대수령들의 조국통일위업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력사적전환의 새시대를 맞이하고있습니다.

확고한 통일의지와 뜨거운 동포애, 한없이 넓은 도량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남북관계개선방향을 천명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동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해주시어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화해와 단합의 훈풍이 불게 하시

고 이 땅우에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고조되게 하시였습니다. 오늘 내외를 격동시키는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분위기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투철한 자주통일사상과 비범한 령도가 안아온 정당한 화폭입니다.

세계정치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하를 굽어보는 비범한 통찰력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철추를 내리시며 자주시대를 정의와 진리의 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십니다.

탁월한 방략과 정의의 력으로 복잡다단한 국제정치로를 주도하시며 세계제국을 꿈꾸는 미국의 야망을 제압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존함은 오늘 진보적인인류에게 커다란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승리의 상징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정령 백두의 억센 기상과 담력,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주체조선의 강성번영과 자주통일의 승리를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온 겨레가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맡기고 따를 민족의 영수,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지금 반제민족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층 애국민중은 천하를 매혹시키는 출중한 위인상과 비범한 정치실력으로 우리 민족의 위상을 높이 떨치시고 정의로운 새 세계를 건설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무한한 민족적근지와 영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원수님의 향도따라 조국통일업에 매진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국통일의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생불멸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향도리념으로 삼고 이 땅의 변혁운동을 오직 주체의 가치관에 전개해나가며 반제민족을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불멸의 전위대로 반석같이 다져나갈 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신 조국통일의 대강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강성번영하게 하는 정의와 진리의 가치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온 겨레의 부락과 자강을 안아오는 백전백승의 령도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의 승리와 민족의 창상한 앞날이 있다는 억척의 신념과 의지를 간직하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대도 오로지 원수님 한분만을 굳게 믿고 따르겠습니다.

당면하여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호소를 높이 받들어 날로 뜨거워지는 남북화해와 령북통일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계 애국민중을 불러일으켜 승승장구하는 주체조선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박과 북한핵전쟁도발소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며 모처럼 마련된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깨버리려고 발악하는 친미보수세력의 반동일책들을 단호히 짓밟아버릴 것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찬연한 빛날로 겨레의 앞길을 밝혀주고 계시기에 부강번영할 통일조국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야 마땅합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제107(2018)년 2월 16일 서 울

주체혁명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조국인민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펼쳐주신 위창한 실개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힘차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76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습니다.

민족최대의 명철인 광명성절을 맞이한 전체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천세적인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국가력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하여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무한한 근지와 무적필승의 신심으로 부풀어 오르고있으며 오늘의 민족사적대사건을 안아오시려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뜨거운 감사의 정으로 한없이 실땀이되고있습니다.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전체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총성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어버이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주신 주체혁명위업과 제일조선인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는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뿜어낸 아들로 탄생하시어 혈전만리의 항일대전과 조국수호의 전장에서 성장하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전두에서 령도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생애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시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강고히 바치시어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고결한 한생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명활무쌍한 선군령도로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의 악랄한 괴립살상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막강한 군사강국, 핵강국으로 전변시키신 강철의 선군명장이시며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어 인민들이 대대손손 수명복, 장군복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불세출의 위대한 정치가이십니다.

민족통일사상 처음으로 6.15통일시대를 마련하시어 조국통일위업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하시고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최세의 정치리로로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칭송을 받고계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총련을 애국애국의 선각자, 애국청정의 모범, 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키워주신 탁월한 수령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의 수호자이십니다.

독창적이고 백과전서적인 해외교포운동사상과 리론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손잡아 이끌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건설 40돐에 즈음하여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어 애국애국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워주시었으며 조국이 강성대국을 건설할 때 총련도 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희망한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전성기를 열자고 크나큰 믿음과 응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재일동포들을 한시송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가장 어려운 나날에도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동포들이 자연재해를 입을 때마다 사랑의 위문전편과 거액의 위문금으로 재생의 길을 열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의 전설로 수놓아진 은혜로운 사랑의 역사는 오늘 총련의 강화발전과 재일동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배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친어버이운정과 세심한 보살핌속에 변함없이 흐르고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의 광명성절을 경축하고있는 전체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조국인민들과 마음과 승결을 함께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계기로 제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나갈 총성의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각급 조직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대외의 일심단결과 동포들과의 혼연일체를 철통같이 강화하며 각급 조직들과 단체들을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애국애국의 생애, 믿음직한 성품으로 반석같이 다짐으로써 총련을 공화국의 강위력한 주체적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지향하여 총련의 본래를 파시하고 위대한 김정은시대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동포생활과 애국사업의 기본단위인 지부사업에 중점을 두고 힘있게 벌리며 대중운동의 강도와 속도 등을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4.24교육투쟁 70돐을 맞는 올해에 제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며 동포제일주의의호를 높이 들고 동포들의 생활상선언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권리옹호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릴 것입니다.

우리들은 공화국창건 70돐을 경축하는 력사적인 해에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 강군명령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조국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하며 일본인민들과의 대외활동을 능숙하게 벌려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높이 받들어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기념일 일명으로 가슴 불태워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거족적인 운동에서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애국적사명감과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주체조선의 상징이시며 조국과 총련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안명은 우리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들은 한결같은 총성과 흥모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전체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육체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제107(2018)년 2월 16일 일본 도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남아프리카공산당 총비서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총비서가 꽃바구니를 보내어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15일 볼레 왔다. 이드 은지만데 남아프리카공산당 꽃바구니의 덩기에는 《위대한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만수대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리 무력총사령관이 꽃바구니를 보내어 꽃바구니의 덩기에는 《김일성대원수각하 김정일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15일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인 무함마두 부하 니가 전정되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만수대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적도기네의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하시겠다》 등의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본사기자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업적은
영원 불멸 할 것이다**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원내 시이선봉자당 중앙지도리서위 총서기 리스미안도가 1월 3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셨으며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정책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셨다. 그이께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만마트르트르출판사 총사 장 마음 마음 나임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그이께서 선군의 가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조선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멸의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신것은 인류정치사에 있어서 기적중의 기적이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인터넷에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의 전문을 【조선중앙통신】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 하시는 위대한 태양

사랑과 의리로 세인을 격동시키신 천출위인

《사상의 영재, 영도의 거장》, 《정의의 수호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칭송하며 인류가 우러러 버린 시대어이다. 최세의 전설적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의 분출이다. 여기에는 만민의 벗을 끌어안는 용감한 사랑과 도량으로 천하를 품어안으신 우리 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한 열렬한 애국의 감정이 관조되어있다. 뜨거운 인간애에 대한 배후는 위인에 대한 흠모를 낳는 원천이다.

《인간사랑의 최고화신》, 《21세기의 태양》이 부름이어야 마땅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흠모와 신비적의 발전으로서 가장 절충한 위인의 품과와 덕망을 칭송한 시대어이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훌륭한 품모도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인류가 직면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 리의 세계를 전하는 가슴뜨거운 이야기, 이 행적을 《김정일동지》으로 돌출한 한 력사의 기록이 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90(2001)년에 로씨야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진행하시였다.

로씨야의 수도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스크바 붉은광장에 있는 레닌묘를 찾으신 후 화환을 진정하시였으며 레닌의 혁명활동사적과 순양함 《아브라모프》의 포성으로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첫시작을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던 레닌묘를 찾으신 후 화환을 진정하시였으며 레닌의 혁명활동사적과 순양함 《아브라모프》의 포성으로 사회주의 위대한 장군님이시기에 사상리론도 인간애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된 사상리론을 내놓으시고 정치도 뜨거운 인격적정, 광복정치를 펼치신것이다.

그 위대한 품에서 세상사람들을 끌어안고 감동시키는 력사에 없는 전설과 일화들이 수없이 생겨났다.

주체 70(1981)년 7월 어느날 평양비행장을 리륙한 비행기가 어느 나라의 수도를 향해 날고있었다. 비행기에는 우리 나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당시 아시아지역국제사상연구소 서기장이었던 고인드 나리안 스리바사라바 타고있었다. 떠날 때부터 편지 않던 고인드 나리안 스리바사라바가 이편에서 더욱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러이 그는 어느 한 나라의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다.

며칠째 입원치료를 받고있던 그에게 뜻밖에도 우리 나라의 한 일꾼이 유용한 의사를 데리고 찾아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인드 나리안 스리바사라바의 병원에 입원하여 병치료를 받고있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유용한 의사와 함께 귀환케 하는 약속을 해주셨던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침상에 누워있느라던 조국에 있는 아들이 보고싶을것이라고 하시며 고인드의 아들을 아버지께의 곁에 보내주도록 하는 온정깊은 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의 다정한 사랑에 접한 고인드의 충격은 컸다. 그는 우리 나라 방문과정에 뜨거운 인간애와 숭고한 덕망으로 인덕정치를 떠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품모에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 그런데 그 사랑과 믿음에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자기와 같은 평범한 외국인에게도 미처왔던것이다. 고인드는 그 감격을 이렇게 터쳤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과 믿음을 받으며 사는 것이상 더 큰 행복은 없다.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대의적이기 때문이다. 하거늘 만민이 우러르는 위대한분으로부터 사랑과 믿음을 받는다 할 때 그 행복, 그 영광을 어디에 비기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나는 나 자신을 이 세상의 행운이라고 말하게 된다.》

어제 고인드만이라. 위대한 장군님의 전설같은 사랑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불멸의 위인찬가를 목에이 부른 외국인의 빛들은 그 얼마나인가.

그 무한한 사랑의 세계는 평양산림에서 태어나 꾸비와 팔레시나에서 천선의 별, 희대의 꽃으로 불리우는 《세월》과 《진달래》라는 이름에도, 유명무명의 인간사랑의 전설들이 수놓아져 있는 대의로운봉사가적 정양친선행렬에도 력히 비껴갔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이야기는 사랑과 애도, 피부해와 국적, 민족을 초월한 자주주의의 거창한 서사시이다.

주체 84(1995)년 4월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는 이노우에 슈헤이의 생일 70돐을 기념하는 연회가 진행되었다. 연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반제자주로 존엄높은 강국

◇ 인류가 반제자주위업실현의 길에 쌓인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있다.

《김정일영도자는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주체혁명위업과 반제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끄신 위인중의 위인이다.》 《김정일각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철을 펼치시어 조선의 국력을 강화하시고 반제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실것은 인류사에 길이 빛날 거대한 공적으로 된다.》...

해와 달을 이어가며 더욱 높이 올려져지는 위인칭송의 매아이다. 이는 반제자주로 정의와 진리를 수호해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감사의 노래이다.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는 반제자주로 인류의 앞길에 밝은 빛을 뿌려주신 불세출의 위인이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혁명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반제자주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 인민의 생명인 주체의 사회주의와 나라의 자주권을 결렬히 수호하시였으며 김일성친민적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시였습니다.》

평전총서 주자와 정의를 위한 인류의 투쟁의 앞길에는 엄중한 시련과 난관이 조성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은 횡포한 도둑과 전횡으로 반제자주의 흐름을 가로막아나섰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해 뒤걸음치고 주저앉았다.

유예없는 력사의 통탄속에서 반제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든 나라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공화국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위력한 총대를 짊어 주시고 제국주의자들의 감악적책동을 단호히 격렬히 격퇴하시였다.

반제자주는 필요고 제국주의와의 힘의 대결을 동반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저들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도록 강요하고있으며 힘으로 지배주의적목적을 실현하려고 발광한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국제무대에서 자기들 할 말도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통솔이 되며 정의와 평등, 반제자주적립장도 지켜낼수 없다.

우리 공화국이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당당히 수호할수 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생결단의 각오와 의지로 다져주신 자위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무대에 립무하는 온갖 불의와 전횡을 맞받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승리적전진을 반제자주의 지향하는 인류에게 커다란 심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시시야말로 반제자주의 대가 줄기차게 호르도록 하여주신 화세의 위인이다.

◇ 오늘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어 반제자주의 보루로 더욱 높이 솟아 빛나고있다.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위력앞에서 전율하고있다. 저들의 침략 야망, 지배주의적목적을 실현해보려고 필사의 발악을 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전대미문의 제제봉쇄책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강도높이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방편은 저들의 패권적지위를 공고히 하는 우리의 불의의 힘에 대한 공포심의 발로이다.

혁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우리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결렬한 반제자주적립장으로 제국주의의 강진과 전횡을 단호히 격퇴하시였다.

다함없는 흠모심의 분출

투쟁과 승리의 영원한 상징

주체 72(1983)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장군 3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찾으신는 외국순방중에는 당시 조선총리 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위원회 제 1부위원장이었던 헤나로 페레스 카사 이스코에따라 있었다.

대하시절에 맑스-레닌주의 서적을 탐독한 그는 그 사상을 무기로 삼고 투쟁의 길에 나섰다. 그러나 선형리론으로써도 발휘수 없는 현실문제들에

《인간애에 대한 참된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이다. 이런 사랑의 대표자를 찾으려고 력사적인인물들과 이롭던 정치가들을 비롯하여 유명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더듬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사랑의 신》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할수 없는 환상적인것에 지나지 않았다.》

20세기 중엽 라틴아메리카의 어느 한 저명한 리리학자가 한평생 탐구를 총화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리리학자의 한평생의 결론, 과연 《사랑의 신》은 환상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단 말인가. 이 물음에 답을 찾은 사람이 있다.

에파드르의 어느 한 출판사

《사랑의 신》은 조선에 있다

수없이 부닥칠 때마다 고뇌와 번민이 사달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그 우리 나라에 와서 주체사상에 접하게 되었다. 충격은 컸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저작들을 한자한자 세겨보는데 과정에 그는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게 되었다. 또한 승승장구하는 조선의 현실을 보며 우리 장군님의 위인상에 더욱 끌려들게 되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절세위인에 대한 배후와 흠모의 정이 새차게 분출되었다.

그는 문필가는 아니였지만 붓을 들어 《사회주의 승리의 위대한 상징》이라는 장본의 글을 썼다. 그는 글에서 우리 장군님의 위인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진보적인류가 현시대에 이끄실 영도자로 높이 모신 김정일동지, 사상과 영도, 덕망의 특출한 위대성으로 만민을 매혹시키시는 그분은 혁명적인인민들에게 있어서 투쟁과 승리의 영원한 상징이다.》

《사랑의 신》은 조선에 있다

총사장이였다.

그로 말하면 우리 나라를 수차례에 걸쳐 방문하고 250여일이나 체류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인민적품모에 대한 이야기를 수많은 들은 사람들이다.

어느날이까 우리 나라를 방문한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종태에 빠진 평범한 노동자의 소생을 위해 돌보이신 사랑과 온정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환자의 생명을 위해 직공기를 써주도록 해주시고 그 직공기가 일기조절으로 조종에 착륙하게 되자 불리한 기상조건에서도 비행할수 있는 대형제거기를 띄워 보내주신 인간사랑의 이야기, 죽음의 계선에서 헤어나고 몸져눕어 불명의 꽃 김일성화과 김정일화를 소개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위인상에 붙여진 애록된 일본의 의학자가 가도 모도대루는 자기자 새로 육종한 꽃을 김정일화로 명명하고 주체 77(1988)년에 그이게 삼가 올렸다.》

가도 모도대루는 어떤 때부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 애록을 안고 살아왔다. 그의 인생환속에 조선과 꽃을 하나로 이어준것은 어머니였다.

1950년대 조선전쟁을

영원토록 만발하라, 태양의 꽃 김정일화여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군사지략에 매혹된 그의 어머니는 일본군국어미대대에 참가하여 조선전쟁을 반대하고 미제를 규탄하였으며 대외활동가들에게 자기와 안고 있는 꽃을 안겨주도록 평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 품모에 대한 어머니의 배후와 절대적인 숭배, 이것은 당시 대학생이었던 가도 모도대루

바다와도 같은 리상세계에 대한 방문이었다.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누리며 그늘 한점 없는 아이들의 웃음과 노소리의 가 울리고 일본군국어미대대가 울리지 못한 곳에서는 무로고 속이 현실로 펼쳐지는 나라... 방문기간 그는 자재로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인민들을 품어주시고 만복을 꽃피워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영도와 뜨거운 사랑, 고

에 태양의 존함을 모시고 탄생 46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올릴 정성을 하였다. 그는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으로 한평생이었던 이 글은 중중히 한자한자 새겨넣었다.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각하에 대한 존경과 경모의 정을 담아 삼가 올립니다. 저는 각각의 정성 46돐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일본과 조선의 후호와 친선을 염원하여 제가 정성을 담아 육중한 알뿌리베고니아를 보내

또한 북유럽김정일화협회, 아메리카김정일화협회, 일본김정일화협회 등이 조직되었다. 저명한 인사들을 망라하고있는 김정일화협회보급위원회는 중국과 일본, 나메스야, 미국 등 여러 나라에도 지부를 두고 불멸의 꽃들을 광범히 보급하는 국제적인 단체이다.

세계화초계에 차치하는 태양의 꽃 지위를 더욱 부각시키듯 2011산년세계연예박람회와 2012네델란드 벨로 세계연예박람회, 몽골 국제화초전 대회, 2014형

세계화초계에 차치하는 태양의 꽃 지위를 더욱 부각시키듯 2011산년세계연예박람회와 2012네델란드 벨로 세계연예박람회, 몽골 국제화초전 대회, 2014형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 공보문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사무국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세계결의)들의 적법성여부를 따지는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하여 대한 제안을 내놓은지 1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부 12일 공보문을 발표하였다.

공보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지금까지 조작한 모든 반공화국(세계결의)들이 주권 국가의 합법적권리와 공인된 국제법칙을 탄압하게 무시하고 조선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목적을 추구한것으로 하여 그 비법성과 반인륜적성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더욱더 확대강화되고있

는 봉쇄형의 반공화국(세계결의)들은 반인륜, 반문명행위인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응당한 규판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공보문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가장 비법적이고 악랄한 방법으로 조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세계결의)들은 조선인민적질적시킴으로써 그 범죄적성이 있다.

이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권력과 전횡에 놀리워 인권유린, 야만적인 국가테러의 도구로 전락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공보문은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권능을 악용하여 결의 《안(결의)》들을 계속 조작해내고 그 리행을 강요하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이 지난해

용납할수 없는 폭거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1월 31일 일본경찰당국은 전 총재 가쓰지카부 위헌장을 《고문상법위반》이라는 혐의로 제1회 헌법재판회로 넘겼다. 다음날에는 총재직으로 승급한 기류의 고의에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리유를 구실로 삼아 총재 도둑도둑부와 총재 도둑도둑부 부위원장 겸 선전문화부장인 기류, 조선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미래재단》의 사무소를 강제수색하는 놀음을 벌여놓았다.

일본경찰당국이 문제로 삼고있는 통장의 송금기록은 통장의 임자가 총재직부일꾼으로 사업하던 시기에 총재 도둑도둑부의 선전문화부장인 기류에게 《조선신보》를 비롯하여 출판물의 대금을 발송한것은 적은것이다. 《고문상법위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일본경찰은 이미 지난해 10월 26일 《고문상법위반》 혐의로 당시 총재 가쓰지카 부위위원장인 기류의 집을 찾았을 때부터 그 때에 아무런 범위반증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 서펜퍼리 판대국을 또다시 벌여놓았다.

그렇다면 아베페거리들이 왜 총재를 상대로 살포장을 계속 펼쳐놓는가 하는것이.

목적은 명백하다. 총재를 어떻게 해서나 비법행위, 범죄행위만을 저지르는 불법단체, 위법단체로 몰아 일본사회에 반공화국, 반총재행위를 고취시키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해괴공인단체인 총재를 하여 흔들어버리자는 데 있다. 나아가

우리 나라 외무상 편지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

조선반도에서 북남관계개선과 긴장완화에 방향한 공평정신 변화가 도래하고있는 시기에 이에 역행하는 위험한 군사적움직임이 나타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우

미국은 과거의 실책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

영국주재 이란대사가 7일 미국은 과거에 범한 실책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인권이 세상을 소만케 하는 대통령 트럼프의 수법을 꼭바로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15년전에 전 미국주장관 포엠펜 부와 제니가 고안해낸 이라크침공작업을 실현에 옮기기 위해 유엔무대에서 일련의 열변을